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의 사회능력과 문제행동 특성 연구

김 유*

부산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안 성 우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박 원 경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석사과정

《요 약》

본 연구는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의 사회능력과 문제행동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학년 차에 따라 일반초등학생과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의 사회능력과 문제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이다.

이에 따른 연구 대상은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 2학년, 3학년) 42명과 초등학교 고학년(4학년, 5학년, 6학년) 14명의 일반초등학생과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으로서,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은 (1) 소아정신과 의사나 1급 언어치료사로부터 단순언어장애로 진단받은 초등학생들로서 (2) 발달장애, 감각장애, 정서장애, 조음기관의 구조적 장애 및 운동기능의 장애를 보이지 않으며 (3) 표준화된 지능검사의 비언어성 지능 검사점수가 85점 이상에 의한 기준에 의해 선별되었고, 일반초등학생집단은 언어발달에 전혀 문제를 보이지 않는 초등학생으로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의 지능지수와 생활연령을 각각 통제하여 동질화한 집단이다. 본 연구의 검사도구는 지능검사와 사회능력 및 문제행동 검사도구로 나누어 지는데, 우선 지능검사는 대상아동을 선별하기 위함으로써 K-WISC-III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사회능력과 문제행동 검사도구로는 K-CBC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각 검사의 채점기준에 근거하여 점수화한 후 SAS 프로그램의 PROC TTEST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우선, 집단선별을 위해서 일반초등학생집단과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집단 간 독립 t검증을 실시하였고 검사 후 두 집단 간의 사회능력 및 문제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초등학생에 비해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의 사회능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향상은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특히 문제행동의 경우는 두드러지게 더 많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문제행동이 더 많이 보임으로써 점차적으로 더 심각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해 대상아동의 언어발달수준정도, 성별 그리고 언어치료를 받은 교육경력 및 부모의 SES 상황 그리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후속연구와 후기 학령기를 포함한 성인기까지 포함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주제어 :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 K-CBCL, 사회능력, 문제행동

* 교신저자(wksc12@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단순언어장애(Specific Language Impairment: SLI)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하여 언어 사용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가진다. 이러한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해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는데, 특히 사회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다(김유, 2007).

Fujiki 등(1999)은 사회정서적 문제로서 위축행동을 꼽았으며 위축의 하위 유형으로 함묵(reticence), 고립-활동(solitary-active), 고립-수동적(solitary-passive)인 면들과 사회능력으로는 친사회적, 충동통제 혹은 호감도 측면으로 하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위축행동을 많이 보이고, 위축의 형태 중 함묵과 고립-수동적인 측면이 많았으며 사회능력의 측면에서는 특히 충동통제와 친사회적 행동측면에서 저조한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함묵은 정서적 안정감과 언어의 수준과 매우 연관이 있다(Hart et al., 2004). 여기서 단순언어장애아동이 보이는 위축이라는 측면에서의 함묵은 단순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언어와 정서적 검사에서 나타나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다(Brinton & Fujiki, 1997; Hart et al., 2004).

Jerome 등(2002)의 구조화되지 않은 놀이 상황에서의 연구 분석 결과로부터 단순언어장애아동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일반아동에 비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위축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며(Redmond & Rice, 1998), 또래와 더 많은 상호 작용을 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Brinton & Fujiki, 2000) 결국에는 스트레스와 불안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상징놀이 능력 역시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Casby, 1997).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접근과 타협, 협동, 의사결정에 있어 일반아동에 비해 어려움을 나타낸다(Brinton et al., 1998). 즉, 언어장애와 관련된 의사소통의 결함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은 우정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래에게 수용되기가 힘들다(Brinton & Fujiki, 1997). Fujiki 등(1996)에 의하면 우정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의 형성(예: 공평, 의리, 용서)이 중요하고, 이는 대부분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언어적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서 사회능력 대부분에서 어려움을 나타냄으로써 동료관계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언어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협동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은 서로 간에 위축될 뿐만 아니라 상대아동을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공격성을 띠게 된다.

뿐만 아니라 Jerome 등(2002)은 연령에 따른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학년별 두 집단(6-9세 집단/10-13세 집단)으로 나누어 SLI초등학생집단의 자존감을 중심으로 SPPC검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어린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6-9세 집단)은 아직 자존감에 있어서 일반아동과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나이 든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10-13세 집단)은 언어문제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일반초등학생에 비해 자존감이 매우 떨어진다고 하였다. 다시말하면,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정서적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언어장애아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언어 그 자체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언어결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파생적인 결과가 사회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성인기까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단순언어장애아동에 대한 사회능력과 문제행동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내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학령기 단순언어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문제가 사회능력과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의 사회능력을 향상시키고 문제행동의 발생율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8세에서 13세까지 학령기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능력과 문제행동을 알아보고 학년 차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의 사회능력과 문제행동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차에 따라 일반초등학생과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 간의 사회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년차에 따라 일반초등학생과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 간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경남지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단순언어장애학생,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단순언어장애초등학생 집단

단순언어장애초등학생은 (1) 소아정신과 의사나 1급 언어치료사에 의해 단순언어장애로 진단받은 아동 중 (2) K-WISC-III(곽금주 외, 2001)의 비언어성 지능 점수가 85점 이상에 속하고 (3) K-WISC-III(곽금주 외, 2001)의 언어성 지능 점수가 생활연령에 비해 1년 이상 지체 된 아동 중 (4) 발달장애, 감각장애, 정서장애, 조음기관의 구조적 장애 및 운동기능의 장애를 보이지 않는 아동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단순언어장애아동의 구체적인 학년 및 성별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학년과 성별에 따른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의 구체적 특성

집단	학년	인원수	성 별		합계
			남	여	
저 학 년	1	24	20	4	42
	2	13	12	1	
	3	5	4	1	
고 학 년	4	5	4	1	14
	5	2	1	1	
	6	7	5	2	

2) 일반초등학생 집단

일반초등학생들은 지능지수와 생활연령을 단순언어장애초등학생과 동일하게 통제시킨 후 언어발달에 전혀 문제를 보이지 않는 아동들로 단순언어장애초등학생과 동일하게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42명과 고학년(4-6) 14명을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특성은 표 II-2에 제시하였다.

<표 II-2>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일반초등학생의 구체적 특성

집단	학년	인원수	성 별		합계
			남	여	
저 학 년	1	24	20	4	42
	2	13	12	1	
	3	5	4	1	
고 학 년	4	5	4	1	14
	5	2	1	1	
	6	7	5	2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검사 도구는 지능검사, 사회능력과 문제행동측정 검사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아동 선별기준 및 진단도구

(1) 지능 검사도구

본 연구의 지능검사를 위해 사용한 K-WISC-III(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III, 박금주 외, 2001)는 Wechsler가 제작한 WISC-III를 우리나라 문화 실정에 맞도록 표준화한 개별용 검사도구이다. K-WISC-III는 만 6세에서 만 16세 11개월 된 일반초등학생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초등학생까지 판별하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높은 검사 도구로써 널리 사용되는데, 언어성 지능검사, 비언어성 지능검사, 전체 지능지수검사로 나누어진다.

일반초등학생과 단순언어장애초등학생 두 집단의 전체 지능지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일반초등학생은 평균 97.27, 단순언어장애초등학생은 평균 93.98로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15, p>.05$)(김유 외, 2007). 구체적으로 저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능검사에서는 일반초등학생의 평균이 96.71, 단순언어장애초등학생의 평균이 92.81로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31, p>.05$). 그리고 고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능검사에서도 일반초등학생의 평균이 98.93, 단순언어장애초등학생의 평균이 97.5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0.20, p>.05$). 즉, 두 집단의 전체 지능지수뿐 아니라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살펴본 지능지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두 집단의 언어성 지능지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62, p<.001$)(김유 외, 2007). 저학년의 단순언어장애초등학생과 일반초등학생의 언어성 지능

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t=2.95, p<.01$), 고학년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13, p<.05$). 이러한 언어성 지능지수를 토대로 단순언어장애초등학생 집단은 언어성 지능지수가 비언어성 지능지수보다 15이상 떨어지는 아동들로 선정하였다.

2) 사회능력과 문제행동 측정 도구

(1)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본 연구에서 사회능력과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로서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인 K-CBCL(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오경자 외, 1997)의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를 사용하였다. K-CBCL은 Achenbach(1991)이 제작한 CBCL을 우리나라 문화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것으로 검사의 신뢰도는 .87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만 4~17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부모가 아동의 사회적 적응 및 문제 행동을 설문형식으로 평가하는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의 K-CBCL의 응답자는 대상 초등학생의 어머니였다. 본 연구자가 응답자인 대상초등학생의 어머니에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 내의 생활이 아닌 학교에서의 생활 등을 위주로 설문지에 응하도록 요청하였다.

① 사회능력 검사

본 연구의 사회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K-CBCL의 사회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능력 척도영역에는 사회성 척도, 학업수행 척도 그리고 총 사회능력점수가 포함된다. 사회성 척도는 참여하고 있는 모임, 단체의 개수, 참가활동의 활발한 정도, 친구의 수, 친구와 어울리는 정도, 형제자매, 또래, 부모 등 사회적 관계의 질 등을 0-8점으로 평가하였다. 학업수행 척도는 국어, 산수(수학), 사회, 자연(과학), 영어 등 5개 과목별로 0, 1, 2, 3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고, 특수학급에 있었는지의 여부, 휴학 및 학업문제 등은 0-5점으로 평정하였다. 총 사회능력 점수는 사회성 척도와 학업수행 척도의 합으로 전체 사회능력 정도를 지수화하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13점으로 평가하였다.

② 문제행동 검사

본 연구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K-CBCL의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제행동의 영역에는 위축척도, 신체증상척도, 우울·불안척도, 사회적 미성숙 척도, 사고의 문제 척도, 주의집중문제의 척도, 비행척도, 공격성 척도, 성문제 척도, 정서불안정척도, 내재화 문제 척도, 외현화 문제 척도 등이 포함된다. 모두 119개의 문항으로서 전체 문제행동 문항을 합한 것으로 문제행동 정도를 지수화한 총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점에서 234점 범위 내에서 평정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6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본 검사 실시에 앞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단순언어장애초등학생들은 소아정신과 의사나 1급 언어치료사에 의해 진단받은 아동들로, 일반초등학생들은 단순언어장애초등학생들과 지능지수, 성별, 생활연령이 동일한 아동들 중 언어발달에 전혀 문제가 없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검사들은 검사도구 사용과 검사 방법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받은 바 있고, 실제 검사 경험이 있는 특수교육과 대학원생들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를 사용한 사회성의 채점자간 신뢰도는 99%로 나타났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들은 SAS 프로그램의 PROC TTEST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먼저 대상 선정을 위하여 일반초등학생집단과 단순언어장애초등학생집단간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인 사회능력과 문제행동에 있어 일반초등학생과 단순언어장애초등학생의 집단간 차이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사회능력에 대한 연구결과

두 집단과 학년 간 사회능력을 알기 위해 실시한 사회능력과제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사회능력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저학년	고학년	합계 평균(표준편차)
SLI초등학생	38.19(11.33)	41.50(12.92)	39.02(11.71)
일반초등학생	54.50(12.04)	57.43(19.25)	55.23(14.05)
합계	46.35(14.22)	49.46(18.02)	47.13(15.23)

사회능력 검사과제의 점수결과 저학년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집단의 평균은 38.19이었고, 저학년의 일반초등학생집단은 54.50으로 나타났다. 고학년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집단의 평균은 41.50이었고, 고학년 일반초등학생집단의 평균은 57.43였다. 요컨대, 학년과 상관없이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집단의 평균이 일반초등학생집단의 평균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한편,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집단과 일반초등학생집단 간의 사회능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사회능력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요인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SLI유무	1	7361.29	7361.29	43.70***
학년	1	204.30	204.30	1.21
SLI유무×학년	1	0.76	0.76	0.00
오차	108	18191.90	168.44	
전체	111	25758.25		

***p < .001

두 집단 간 비교해 볼 때는 사회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43.70, p<.001$). 즉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집단이 일반 초등학생집단보다 사회능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학년 수준 간 비교에서는 사회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F=1.21, p>.05$), 두 집단과 학년에 따른 상호작용 또한 사회능력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0.00, p>.05$).

2.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결과

두 집단과 학년 간의 문제행동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III-3과 같다.

문제행동 검사과제를 실시한 점수결과, 저학년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집단의 평균은 54.86이었고, 저학년의 일반초등학생집단은 30.57로 나타났다. 고학년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집단의 평균은 56.93이었고, 고학년 일반초등학생집단의 평균은 32.79이었다. 요컨대, 학년과 상관없이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집단의 평균이 일반초등학생집단의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3> 문제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저학년	고학년	합계 평균(표준편차)
SLI초등학생	54.86(10.29)	56.93(10.12)	55.38(10.19)
일반초등학생	30.57(5.64)	32.79(7.18)	31.13(6.07)
합계	42.71(14.74)	44.86(15.01)	43.25(14.77)

마찬가지로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집단과 일반초등학생집단 간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문제행동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요인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SLI유무	1	16465.75	16465.75	232.56***
학년	1	96.43	96.43	1.36
SLI유무×학년	1	0.11	0.11	0.00
오차	108	7646.71	70.80	
전체	111	24209.00		

***p < .001

두 집단 간 비교해 볼 때는 문제행동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32.56, p<.001). 즉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집단이 일반초등학생집단보다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 수준 간의 비교에서는 문제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1.36, p>.05). 또한 두 집단과 학년에 따른 상호작용도 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0.00, p>.05).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1) 연구도구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집단 간 사회능력과 문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K-CBCL을 사용하였다. CBCL을 실시한 Tallal 등(1989)은 5세 된 언어장애아동의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단적인 연구로서 언어장애아동들이 8세가 되었을 때 언어와 관련된 문제항목을 제외했을 때조차 사회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표준화된 K-CBCL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의 고윤주 등(2000)은 K-CBCL을 통해 학령기아동의 문제행동 및 사회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K-CBCL은 일반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사회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이므로 본 연구의 사회능력 및 문제행동을 재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K-CBCL의 척도 중에서 문제행동증후군척도는 본 연구의 대상인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에게 매우 호응도가 좋았다.

2)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1) 사회능력에 대한 논의

사회능력 과제의 목적은 두 집단과 학년수준별 사회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과제 실시결과, 집단 간 비교에서 일반초등학생집단보다 낮은 수행을 보임으로써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이 일반초등학생에 비해 사회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래수용을 또래와의 인기와 관련지어 설명한 Gerther 등(1994)의 연구와 사회적 상호작용행동에 대해 연구한 Fujiki 등(1999) 및 또래와의 타협기술에 대해 연구한 Briton(1998) 등의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사실과 일치한다. 즉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또래와의 수용과 우정 및 접근에서 부정적인 문제를 보이며, 집단 활동 시 협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타협기술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극소수여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인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의 사회능력이 떨어진다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학년수준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고학년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의 평균은 저학년의 평균은 높았으므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회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의 사회능력을 정리해보면, 학년이 높

아질수록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의 사회능력은 향상되기는 하지만 일반초등학생에 비해 떨어진다고 결론내릴 수 있겠다.

(2) 문제행동에 대한 논의

문제행동 과제 목적은 두 집단과 학년수준별 문제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문제행동 과제 실시 결과,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집단과 일반초등학생집단을 비교해 볼 때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집단이 일반초등학생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문제행동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언어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Hart 등(2004)의 연구결과와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의 사회적 부적응행동인 위축의 한 형태로서 함묵에 대해 연구한 Fujiki 등(2004)의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단순언어장애아동을 직접 관찰한 연구로서 Fujik 등(2001)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제와 문제행동으로서의 위축행동뿐만 아니라 공격 행동도 많이 보인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학년수준 간 비교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Jerome 등(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Jerome 등(2002)은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자존감을 SPPC검사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학년별 두 집단(6-9세 집단/10-13세 집단)의 SLI초등학생의 자존감 비교에서 어린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6-9세 집단)은 아직 자존감에 있어서 일반아동과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나이 든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10-13세 집단)은 언어문제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일반초등학생에 비해 자존감이 매우 떨어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 초등학생들의 학년별 수를 살펴보면, 저학년은 42명인 반면, 고학년은 14명으로서 3배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무리가 따랐다. 하지만 고학년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평균은 저학년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의 평균보다 월등하게 더 높다. 이를 통해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남을 유추해볼 수 있다.

3. 결론 및 제언

앞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의 사회능력과 문제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첫째,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은 사회능력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향상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일반초등학생보다 매우 떨어졌다.

둘째,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은 문제행동에서 일반초등학생보다 많이 보였다.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에 있어서 저학년의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보다 고학년의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이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임으로써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심각해짐을 알 수 있다.

정리해 보면,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의 사회능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향상은 되지 만, 일반초등학생에 비해 사회능력이 저조하며 문제행동에서도 일반초등학생보다 더 많 이 나타남으로써 역시 문제행동을 많이 보일 뿐만 아니라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문제행 동이 더 많이 나타나 심각해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초등학교의 상황은 사회능력에 있어서 또래와 접할 수 있는 기회나 사회적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따라서 일반초등학생들의 사회능력을 따 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주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언어장애 초등학생 이 사회능력에 결함을 보인다는 것은 주요 결함인 화용론적 언어결함을 포함하는 언어 적 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능력에까지 결함을 보이고 문제행동을 더 많 이 나타낸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해 대상아동의 언어발달수준정도, 성별 그리고 언어치료를 받 은 교육경력 및 부모의 SES 상황 그리고 후기 학령기를 포함한 성인기까지 포함된 연 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김유(2007). 단순언어장애초등학생의 학습능력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 안성우, 박원경(2007). 단순언어장애초등학생의 학습능력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16(4), 발간 예정.
- 곽금주, 박혜원, 김청택(2001). **K-WISC-III(한국웨슬러 아동지능검사)**.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 **K-CBCL(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Brinton, B., & Fujiki, M. (1997). The ability of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to access and participate in an ongoing interaction. *Journal of Speech, Language & Hearing Research*, 40(5), 1011-1026.
- Brinton, B., & Fujiki, M. (2000).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in Cooperative Work Groups: A Pilot Study. *Language, Speech, &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1(3), 252-264.
- Brinton, B., Fujiki, M., & McKee, L. (1998). Negotiation skills of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 Hearing Research*, 41(4), 927-941.
- Casby, M. W. (1997). Symbolic play of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Speech, Language & Hearing Research*, 40(3), 468-480.
- Fujiki, M., Brinton, B., & Todd, C. M. (1996). Social Skill of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Language, Speech, &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0(2), 195-201.
- Fujiki, M., Brinton, B., Hart, C. H., & Fitzgerald, A. H.(1999).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19(2),

34-49.

- Fujiki, M., Brinton, B., Isaacson, T., & Summers, C. (2001). Social Behaviors of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on the Playground: A Pilot Study. *Language, Speech, &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2*(2), 101-114.
- Fujiki, M., Spackman, M. P., Brinton, B., & Hall, A. (2004). The Relationship of Language and Emotion Regulation Skills to Reticence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 Hearing Research, 47*(3), 637-646.
- Gertner, B. L., Rice, M. L., & Hadley, P. A. (1994). Influence of communicative competence on peer preferences in a preschool classroom.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7*, 913-923.
- Hart, K. I., Fujiki, M., Brinton, B., & Hart, C. H.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Behavior and Severity of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 Hearing Research, 47* (3), 647-662.
- Jerome, A. C., Fujiki, M., Brinton, B., & James, S. L. (2002). Self-Esteem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 Hearing Research, 45*(4), 700-714.
- Redmond, S. M., & Rice, M. L. (1998). The socioemotional behaviors of children with SLI. *Journal of Speech, Language & Hearing Research, 41*(3), 688-701.
- Tallal, P., Dukette, D., & Curtiss, S. (1989). Behavioral/Emotional profiles of preschool Language-impaired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 51-67.

A Study of Social Capacity and Problem Behavior in Elementary Student with SLI

Kim, Yoo

Busan National University Special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Ahn, Seong-Woo

Busan National University Special Education

Park, Won-Kyung

Busan National University Special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ocial capacity and problem behavior of the elementary student with SLI.

To be more specific, the main topics are as follows.

The difference in social capacity and problem behavior between two groups.

The subject matters are the children with SLI and the general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42 lower grades (1st, 2nd and 3rd grade) and in 14 higher grades

(4th, 5th and 6th grade).

The research test tools of intelligence and sociality prove the subject matters to be the student with SLI by pediatric psychiatrist or certified speech therapist, and the general children without the experience of speech disorder and share the same intelligence quotient, gender, and chronological age by t-verification with the former group .

The data were collected by individual testing and done in statistics by PROC TTEST of SAS program.

Above all, independent t- test was executed for the group sorting, between the general student group and the student group who with SLI. After the test, Two-way ANOVA was executed between the two groups for the difference in the social capacity and problem behavi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 significant difference existed, as regards to social capacity and problem

behavior between two groups. In conclusion, the result of study shows that poorer performance of the elementary student with SLI on the social capacity and problem behavior test reflect their poor social capacity and a lots of problem behavior.

Key Words : SLI, K-CBCL, social capacity, problem behavior

논문 접수: 2007. 7. 15 심사 시작: 2007. 8. 5 게재 확정: 2007. 12. 17